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김 금 미[†]

성균관대학교

안 상 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변인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성별과 접촉에 따른 수용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어서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안하는 변인들, 즉 태도, 주관적 규범, 계획된 행동 통제, 행동 의도 및 행동 변인과, 사회정체성이론으로부터 한국인집단정체성, 그리고 대상에 대한 태도인 고정관념과 편견(정서)이 수용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고정관념에서 수용적 태도, 행동의도, 및 행동으로 향하는 경로를 편견(정서)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한국인집단정체성과 주관적 규범에서 차이가 있었고, 접촉에 따라서는 수용행동, 지각된 행동통제와 연민 정서에서 차이가 있었다. 제시된 모델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의도의 57%, 수용행동의 54%가 설명되었다. 또한 고정관념에서 수용행동의도와 수용행동을 각각 설명하는데 정서가 부분매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 수용행동의도, 수용행동을 구별하여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 동남아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관련 변인들에서 성별과 접촉에 따른 차이를 밝히며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수용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의 영향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수용성, 고정관념, 편견(정서), 계획된 행동이론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KRF-2009-353-H00006).

[†] 교신저자 : 김금미, 다움심리연구소, (153-79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44

E-mail : imttokki@hanmail.net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세계의 2억 1,400명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이주자로 살고 있다고 한다(김현미, 2014). 1871년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워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싸울 것과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이래 약 150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 한국인은 이미 혈통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민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기아와 빈곤, 식민지 고통을 피해 아시아로 떠돌던 우리 민족에게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한 동포의 송금이 국가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었던 시기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로부터의 '이주 목적국'으로 급격히 변모했다(김현미, 2004).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의미는 우리 민족에게는 외국인 노동자로 존재했고, 현재도 그렇게 일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 민족의 성원이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가까이 경험한지 채 반세기도 넘지 않았으므로, 접근 방법에 따라서는 우리 민족에게 '이주노동자의 삶'이 친밀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러한 '이주 목적국'으로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여 한국인들이 이러한 외적인 변화를 소화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있다.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위 3D업종(Difficult, Dangerous, Dirty)을 기피하게 됨에 따라,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하여 선택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비교적 인건비가 덜 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이었다(박신혁, 전

우영, 1998).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 의해 유입된 외국인, 특히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업무 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김명현(2013)에 따르면 2012년 11월 31일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총 539,817명(이 가운데 단순기능인력 489,005명(90.58%))이고 이 가운데 미등록 노동자는 66,366명(12.29%)이며, 단순기능 인력의 12.56%인 62,885명이 불법체류자이다. 오랫동안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특징 중의 하나가 '단일민족'이었던 우리 민족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성숙한 다문화 의식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2006년에 보고된 전국 조사 자료(김혜숙, 박수미, 2006)에 따르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학벌이 낮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및 이동주(2007)는 다문화 수용성을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인정과 문화권의 배경에 따라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상호간 존중과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송미영(2010)도 다문화 수용성에 대하여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이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심리학분야에서는 사람, 사물 및 아이디어에 관한 신념과 감정, 평가와 이에 따른 행동경향성의 조합을 '태도'(Gleitman, 1999; Weiten, Lloyd, Dunn, & Hammer, 2009)라고 정

의했는데, 이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이란 결국 ‘타문화로부터 이주해온 대상들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정도’이고, 이는 인지, 정서, 행동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때 인지는 ‘고정관념’(Fiske, 2004)으로서,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지니고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특징에 대한 신념이고, 정서적 요소인 ‘편견’(Fiske, 2004)은 그 집단 성원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좁혀서 보거나, 더 나아가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종차별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종족 배제주의, 성차별주의 등이 이에 속한다 (Weiten et al., 2009).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는 ‘차별’로서 특정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에 대한 비교절하된 대우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태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다만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태도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초점을 두었고, ‘다문화 수용성’은 부정적 태도와 상반된 측면, 정책적 측면을 강조한 순화된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Berry(1997, 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2002)는 소수집단의 문화화 전략을,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 다른 문화와 일상적 상호작용 관계를 원하는 동화전략, 자신의 문화유지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모두 별로 관심이 없는 주변화 전략, 원래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분리 전략, 및 원래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원하는 통

합전략으로 나누었고, 이에 해당되는 다수집단의 전략으로 동화(melting pot), 배제, 격리, 다문화주의 전략을 덧붙인 바 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볼 때,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단일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는 배제정책을,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동화정책을 취하면서, 담론의 차원에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최종렬, 김정규, 인운택, 및 최인혁, 2008).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최소한 표방된 의식면에서 외국인과의 소수 인종 민족 집단에게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관용성과 개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영호, 2009). 또한 전반적으로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지 않았고, 혈통중심적인 국민정체성도 기대만큼 강하지 않았다(윤인진, 송영호, 2011).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따라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낙관할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현저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종족적 배제주의 척도를 이용했을 때도 다양성 수용능력의 한계나 이주민 본국 송환 등에 대해서 배제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황정미 등, 2007). 이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일 때는 그리 나쁘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는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접촉 여부와 수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한편 ‘단일민족의식’은 다문화 수용의 대상에 따라 달리 작동할 수 있다. ‘다문화’ 사람들은 합법적 체류 여부, 영어 가능 문화권 출신 여부, 혹은 동남아 출신이나 서양계 출신 등 여러 분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분

류보다 더 일반적인 분류는 이주 목적과 출신국이 조합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사회의 '다문화 사람들'은 대체로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조선족과 같은 외국국적 동포 혹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으로 분류하여 지칭된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혈연관계를 벗어나는 대상이 이주노동자이다. 다문화 교육 정책의 주요 대상은 한국인들과 혈통 관계를 맺고 있거나 궁극적으로 한국인으로 포함되는 국제 결혼 이주자와 그 자녀들로서, 한국인과 혈통 관계가 없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정책은 적거나 거의 없다(김희정, 2007; 이민경, 2008; 이선옥, 2007; 최수정, 2009 재인용). 결론적으로 이들은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대상에서조차도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최수정, 2009). 실제로 김동수, 김도환, 및 정태연(2011)의 연구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6개 외국인 집단, 즉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조선족과 새터민에 대한 한국대학생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 때 인식 경험은 한국인과의 관계, 유능성, 성격 등 6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에서 미국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나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많이 나타나서 서로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편 김혜숙 등(200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집단들(지역집단, 성집단, 신체장애인,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하여 유능함과 따뜻함 차원에서 고정관념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따뜻함이 높고 유능성이 낮은 군집'에 속하였다. 이는 해당 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범주 속에,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유능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서양계 외국인 근로자'를 명

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한국 정주민과 혈연관계가 없으며, 사회적 지위가 낮은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고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태, 노동 및 생활 조건, 한국사회 적응 및 차별(노고운, 2001 등, 황운경, 2012 재인용; 박신혁, 전우영, 1998)을 밝히는 연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소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관련된 연구들(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김혜숙, 2007; 김혜숙, 김도영, 2010; 박수미, 정기선, 2006; 양계민, 2009)이 있다. 그런데 이 때 다문화 수용성 연구의 대부분은 다문화 수용성을, 인지적인 요소가 강조된 '사회정체성'(예. 양계민, 2009a)이거나, 정서적인 요소를 주로 하는 '자민족중심주의'(예. 양계민, 2009a)거나, 행동적인 요소가 강조된 '사회적 거리척도'(예. 맹진학, 2009; 유연재, 김혜숙, 2000)의 개념으로 분리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의 이론 모델에 기초하여 다문화 수용 행동을 예측하는 심리내적 모형틀을 설정하고 일관되게 검증하는 것은 정책과 실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성별과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와 접촉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금미의 선행연구들(김금미, 2010, 2011)에서 공통되게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수용적이었다. 즉, 결혼이주여성(김금미, 2010)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다문화 수용적인 태도와 행동의도 그리고 행동을 보였다. 새터민(김금미, 2011)에 대한 연구에서도 역시 행동의도와 행동에서 여성이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두 연구 모두, 주관적 규범에서는 남성이 더 높았다. 그런데, 본 연구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는 혈연관계가 배제되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이라는 범주 표상이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분석한 김혜숙 등(2003)의 연구에서 남성평가자들과 여성평가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유능성’, ‘따뜻함’, 그리고 ‘감정온도’에 대해 유사한 방향으로 평가했지만, 신뢰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편견 및 집단 간 갈등 연구들에서는 매력과 접촉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인종 간 갈등 해소방안으로 인종 간 접촉기회의 증가를 통해 편견과 갈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이에 대해 Allport(1954)는 접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등 지위, 공동 목표,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활동, 제도적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집단 간 접촉의 증가가 과연 집단 간 매력의 증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Brown, 2000). 유사성-매력 가설은 접촉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동질성에 기초하지만, 사실 접촉 자체만으로 이후 관계의 향방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세부적이

고 반복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주민 집단들(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에 대한 태도와 내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를 비교한 연구(김혜숙 등, 2011)에서도 접촉의 수보다는 접촉의 빈도가 편견 감소를 더 잘 예측하였다.

또한 양계민과 정진경(2005)은 북한이탈주민과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접촉경험이 없었던 무경험 집단은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연민의 정서도 높았다. 한편,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알아본 연구(김금미, 2011)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접촉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의도에는 한국인집단정체성이 영향을 미치지만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와의 접촉경험 유무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고정관념과 정서의 요인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모형의 설정: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는 ‘행동을 보다 정확히 예언하기 위해서는 행동 이전의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의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Ajzen, 1991)에서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행동의 선행변인으로 행동의도를 설정

하고,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태도 이외에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 변인을 추가하였다. Ajzen(1991)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한덕웅, 이민규, 2001; Arnold, Loan-Clarke, Combs, Wilkinson, Park, & Preston, 2006; Beale & Manstead, 1991; Forward, 2009; Hoyt, Rhodes, Hausenblas, & Giacobbi, 2009; Norman, Armitage, & Quibley, 2007; Simsekoqlu, & Lajunen, 2008; Song, Wanberg, Niu, & Xie, 2006)이 구직, 음주, 선거, 학점관리, 체중관리, 수유행동, 직업 선택이나 의도, 운동, 운전 등 많은 분야에서 모형의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1997년까지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185개의 독립적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52의 중다상관을 얻었다(Armitage & Conner,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좀 더 중요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사용하였다. 즉,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 변인, 즉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하고, 이어서 수용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행동에 대한 태도 이외에 대상에 대한 태도, 즉 고정관념(인지적 요소) 및 편견(정서적 요소)과,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중

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정체성 요소, 즉 한국인집단정체성을 도입하였다.

이 때,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포함된 태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이고,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대한 호의적인 평가 정도를 말한다(한덕웅, 이민규, 2009). 이는 대상에 대한 태도(Eagly & Chaiken, 1993)와 구분되는데, 대상에 대한 태도, 즉 대상에 대한 인지적인 요인(고정관념)과 정서적인 요인(편견)도 최종적인 행동변인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김금미(2010, 2011)에 따르면 행동의도에는 고정관념보다 정서가, 행동에는 정서보다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량을 보였다. 행동에 대한 태도에 더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가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인지와 정서가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한편, Cuddy, Fiske, 및 Glick(2007)은 인지, 감정, 그리고 행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기능적이어서 예측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행동 경향성에 대하여 고정관념보다 정서의 영향이 더 강력함을 보였다. 즉 인지가 행동의 단서를 제공하고 정서가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가정하에(Cuddy, et al., 2007), 유능성-따뜻함 고정관념의 각 조합에서 서로 다른 정서가 연결되고 이것이 행동 경향성과 연결된다는 가설을

1) 고정관념과 편견은 정의상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일컫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긍정적 방향과 연결하여 설명하므로 어감상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고정관념은 어의상 '고정된 관념'이므로 긍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편견은 '편향된 견해'를 뜻하므로 이해에 혼란을 더 줄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요소는 '고정관념'으로 지

칭하지만, 정서적 요소는 '편견' 대신 '정서'로 지칭했고, 이후 분석에서는 '고정관념'과 '정서'의 내용을 수용성과 일관된 방향이 되도록 환산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의 성격을 띤 인지적, 정서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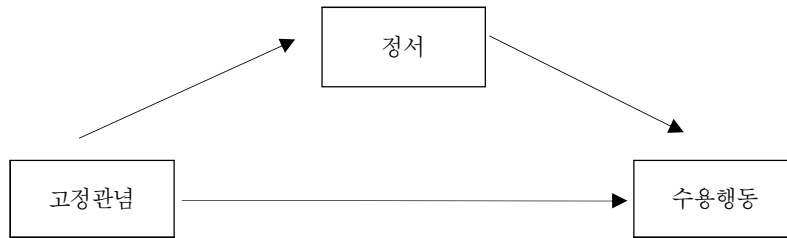


그림 1. 고정관념이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하여, 각 고정관념 조합에서 행동으로 향하는 연결을 정서가 완전 혹은 부분 매개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고정관념이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그런데 Cuddy 등(2007)의 연구에서 이러한 행동 경향성은 ‘배제한다’ ‘화합한다’ 등의 8개 측정문항으로써, 이것이 태도와 행동의도가 아닌 행동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태도와 행동의도 및 행동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양계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도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측면과 개인적 특성들(권위주의 성향,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었고 인지적 측면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으며, 수용에는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신뢰는 ‘일자리에 안심하고 추천하겠다’ 등의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수용은 ‘북한 이탈주민에게 세를 줄 것인지’ 등의 사회적 거리 개념의 6개 문항으로 측정함으로써 두 가지 모두 수용행동의도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김금미(2010, 2011)의 결혼이주자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용적 행동의도

에는 정서가, 수용행동에는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과 정서로 구분하여 태도, 행동의도, 행동에 대해 각각 매개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일관되게 Devine(1989)은 마음이 행동으로 발현되는데 있어서 활성화 이후에 인지적으로 활성화된 내용과 반대되는 방향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 수용행동의도, 그리고 수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고정관념)의 영향과 정서(편견)의 영향을 구분하여 정서(편견)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때 인지적인 요소로서 고정관념과 정서적인 요소인 편견은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남아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에서는, Cuddy 등(2007)의 주장과 같이, 따뜻함-유능함 고정관념 차원, ‘불쌍함, 경멸, 부러움, 찬탄’이라는 네 개의 정서 차원, 및 촉진-위해 차원과 적극-소극차원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행동 차원이 완벽히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고 고정관념-정서-행동의 내용의 연결이 가장 자연스러운 요인을 선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 1) 성별에 따라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 2)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와의 접촉 여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 3)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4)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5)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수용적 태도, 수용행동의도,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가 매개하는가?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계층(송미영, 2010)’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다문화 수용적 방향으로 변화의 개입 방법을 모색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좀 더 역사가 깊은 개인 내적 변인에 해당하는 국민정체성과 고정관념 및 정서의 영향력을 먼저 살펴보고, 이 후에 인지적 변화 가능성이 비교적 더 높은 계획된 행동이론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조사는 서울과 지방 소재의 4개 대학에 총

550부의 설문지를 임의표집하여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1/4이상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51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남학생은 269명(52.7%), 여학생은 241명(47.3%)이었고,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21.11세($SD=2.86$)였다. 동남아시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0(전혀 모른다) ~ 6(매우 잘 안다)점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평균 2.34점($SD=1.33$)으로 중간보다 약간 모르는 정도였고, 이들과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은 229명(44.7%), 접촉경험이 없는 사람은 283명(55.3%)으로 접촉경험이 없는 사람의 수가 약간 더 많았다.

측정도구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용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와 행동, 그리고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및 ‘한국인’에 관련한 사회 정체성과 접촉 여부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0.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형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용 행동

김금미(2010, 2011)와 Cuddy 등(2007)의 문항을 바탕으로 대상을 바꾸어 실시하였다. 실제로 수용 행동을 한 경험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친구들에게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등의 18문항이었다. 이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의 구조를 알아보았다. 모형은 공통요

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 성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로 추정하였고 요인의 회전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베리맥스법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 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58.59%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정적 행동’ 요인은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의 말투가 귀에 거슬린 적이 있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산된 문항의 평균이 4.35($SD=0.87$)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행동’ 요인에 해당하는 수용 정도는 ‘약간 그렇다’와 ‘상당히 그렇다’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4.71,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친구에게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긍정적 행동’ 요인이었다. 이 요인의 평균은 6점 만점의 7점 척도 가운데 2.84($SD=1.02$)로 3점 중간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3.39,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마지막 요인은,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생활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간접 접촉 행동’ 요인이었다. 이 요인의 평균은 3.82($SD=1.21$)로 3점 중간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44, 신뢰도 계수는 .71이었다.

조사 대상 대학생의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의 전체 평균은 6점 만점의 7점 척도에서

3.84($SD=0.68$)로 척도의 중간 값인 3점(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부정적 행동을 역산하였으므로,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수용적으로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수용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다. 태도가 가치나 신념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행동의도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실천 의사나 행동 추구 경향을 묻는다는 점에서 다르다(Ajzen, 1991). 또한 행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 행동을 한 경험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므로 행동의도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 행동의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성평등 행동의도를 측정하는데 계획된 행동이론의 틀을 적용했던 김금미(2001)의 문항을 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실제로 수용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나는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를 개인적인 가까운 친구모임의 멤버로 삼겠다’ 등으로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6문항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3.70($SD=.81$)점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수용 행동의도를 지님을 뜻한다. 6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수용적 태도

태도는 그 행동에 대한 가치나 신념을 측정한다(Ajzen, 1991).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혜숙 등(김혜숙, 오승섭, 1999; 김혜숙, 2002; 유연재,

김혜숙, 2000)의 탈북자 및 대북 정책에 관한 태도를 참고하여 행동에 대한 태도가 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동남아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등의 총 8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평균은 3.89($SD=0.90$),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규범적 압력에 동의하는 정도로(Ajzen, 1991), ‘내가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을 실행하기에는 주변의 규범적 압력을 많이 받아 그러한 방향의 행동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은 1.93($SD=1.16$), 신뢰도 계수는 .77이었다.

지각된 행동통제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을 수행하기가 용이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적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등의 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Pearson 상관 계수는 .70이었고, 두 문항의 평균은 6점 만점의 7점 척도에서 3.60($SD=1.16$)으로, 중간점 3점보다 약간 높은 통제 지각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을 실행하는데 통제력이 높다는 의미이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신념으로 측정하였다.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관념 연구들(김금미, 2010; 김혜숙, 2002; 전우영, 1999)과 Cuddy 등(2007)의 고정관념 형용사들을 참조하여, 37개의 형용사를 이번 조사에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 공통성이 0.4 이하인 네 문항을 제외시키고, 요인 계수가 .35이상으로 세 요인에 공통되게 걸리는 세 문항을 제외한 30문항을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에 포함시켰다. 사용된 요인분석 방법은 수용행동 분석 방법과 동일하다. 모두 네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59.47%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위협적 고정관념’ 요인으로, ‘위협적이다’, ‘경쟁적이다’와 같은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 고정관념의 방향으로 역산된 평균이 4.35($SD=.98$)로 위협적 고정관념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5.84,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따뜻하다’ ‘착하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따뜻한 고정관념’ 요인이었다. 이 요인의 평균은 3.68($SD=.67$)로 중간 정도의 긍정적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5.13, 신뢰도 계수는 .79였다. 세 번째 요인은 ‘유능하다’ ‘지적이다’와 같은 ‘유능한 고정관념’ 요인이었다. 이 요인의 평균은 3.84($SD=.76$)이고 고유치는 3.66, 신뢰도 계수는 .84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은 ‘개인적이다’ ‘폐쇄적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개인적 고정관념’ 요인이다. 요인의 평균은 3.97(1.13)이고, 고유치는 2.62,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조사 대상 대학생의 고정관념의 전체 평균은 6점 만점의 7점 척도에서 3.27($SD=0.40$)로 척도의 중간 값인 3점(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73이었다.

이 척도에서 점수를 계산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간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편견

편견은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서와 평가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유연재와 김혜숙(2000)의 북한에 대한 문항, Cuddy 등(2007)의 정서 측정 형용사를 참조하여, 13개의 형용사를 본 조사에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수용행동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과 일관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산하였다. 세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69.80%를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협오적 정서성’ 요인은 ‘협오스럽다’, ‘불쾌하다’ 등의 협오적인 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0~6점의 7점 척도에서 평균이 4.50($SD=1.11$)으로 역산된 점수이므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협오적 정서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4.39,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존경·긍정적 정서성’ 요인으로 ‘존경할 만하다’, ‘자랑스럽다’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평균은 1.40($SD=.85$)로 존경·긍정적 정서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41, 신뢰도 계수는 .73이었다. 마지막 요인 ‘연민 정서성’ 요인의 평균은 2.92($SD=1.28$)로 중간 정도의 연민 정서를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27, 신뢰도 계수는 .79였다.

조사 대상 대학생의 전체 평균은 3.18($SD=.63$)로 척도의 중간값인 3점(보통)보다 약간 높

은 수준이었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1이었으며, 협오적 정서성 점수와 연민 정서성 점수를 역산하였기 때문에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서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²⁾.

한국인집단정체성

한국인집단정체성은 사회정체성의 개념이 한국인 집단에 적용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한국인’이라는 소속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되게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문항은 김금미와 한덕웅(2001), 금명자, 권혜수, 및 이희우(2004), 양계민(2009 a, b)의 문항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5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집단정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0~6점 만점의 7점 척도에서 평균은 4.00($SD=.79$),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접촉여부

동남아외국인 노동자와의 접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동남아외국인 노동자를 실제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으로 처리하였다. 기초적 정보를 분석하는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과 접촉에 따른 수용성

2) 연민정서성의 경우는 요인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확인하고 역산하였다.

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삼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요한 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고정관념이 태도, 행동의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주장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구성개념의 상호상관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행동과 행동의도의 상관이 .70으로 가장 높았고, 고정관념과 편견의 상관도 .61, 태도와 행동의도의 상관도 .60으로 이론과 일관되게 매우 높은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정체성은 행동의도 및 주관적 규범과 부적

상관을 제외하고 다른 변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주관적 규범과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과 태도의 상관이 낮은 편이었고, 그 밖에는 대체로 상관계수 .30이상으로 중간 강도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

먼저 성별에 따른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M=4.10(SD=.80)$)이 여성($M=3.86(SD=.74)$)보다 한국인집단정체성이 더 높았고, 주관적 규범 점수의 차이가 유의해서 남성($M=2.05(SD=1.12)$)이 여성($M=1.80(SD=1.18)$)보다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을 실행하기에는 주변의 규범적 압력을 많이 받아 그러한 방향의 행동을 실행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용행동 관련 주요 종속측정치라고 할 수 있는 행동, 행동의도, 태도에서 모두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구성개념 측정치들간의 상호관계

	1	2	3	4	5	6	7	8
1. 행동	1	.70**	.45**	.46**	-.00	.48**	-.36**	.56**
2. 행동의도		1	.46**	.48**	-.09**	.60**	-.35**	.56**
3. 고정관념			1	.61**	.00	.26**	-.36***	.32**
4. 편견				1	-.01	.30**	-.35**	.44**
5. 한국인 정체성					1	-.04	-.12**	-.05
6. 태도						1	-.13**	.41**
7. 주관적 규범							1	-.25**
8. 행동통제								1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성별에 따른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

	남 M(SD)	여 M(SD)	t
행동	3.83(.65)	3.86(.72)	-.43
행동의도	3.66(.91)	3.75(.86)	-1.21
고정관념	3.25(.41)	3.29(.40)	-1.09
정서	3.22(.64)	3.12(.62)	1.81 ⁺
한국인 정체성	4.10(.80)	3.86(.74)	3.53 ^{***}
태도	3.60(1.03)	3.60(.93)	.00
주관적 규범	2.05(1.12)	1.80(1.18)	2.46 [*]
행동통제	3.65(1.17)	3.53(1.14)	1.19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접촉경험에 따른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

먼저 접촉 경험에 따른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촉 경험이 있을 때($M=3.97(SD=.71)$) 접촉 경험이 없을 때($M=3.74(SD=.65)$)보다 수용행동에서 더 수용적이었고, 행동의도와 태도

도 수용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한국인집단정체성, 주관적 규범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접촉경험이 있을 때($M=3.76(SD=1.19)$) 접촉경험이 없을 때($M=3.46(SD=1.11)$)보다 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더 높았다.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정관념과 정서는 접촉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

표 3. 접촉경험에 따른 수용적 행동 관련 변인의 차이

접촉경험	유 M(SD)	무 M(SD)	t
행동	3.97(.71)	3.74(.65)	3.69 ^{***}
행동의도	3.77(.93)	3.64(.85)	1.66 ⁺
고정관념	3.24(.44)	3.29(.37)	-1.21
정서	3.16(.67)	3.19(.60)	-.57
한국인 정체성	3.99(.84)	4.00(.73)	-.25
태도	3.70(.96)	3.53(1.00)	1.94 ⁺
주관적 규범	2.01(1.18)	1.87(1.13)	1.43
행동통제	3.76(1.19)	3.46(1.11)	2.97 ^{**}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접촉경험에 따른 고정관념과 정서의 하위 요인의 차이

접촉경험		유 <i>M(SD)</i>	무 <i>M(SD)</i>	<i>t</i>
고정 관념	위협적인 고정관념	4.34(1.06)	4.36(.90)	-.18
	따뜻한 고정관념	3.71(.69)	3.66(.66)	.92
	유능한 고정관념	3.91(.78)	3.96(.75)	-.64
	개인적인 고정관념	3.89(1.25)	4.02(1.01)	-1.24
정서	협오적 정서성	4.52(1.17)	4.47(1.06)	.53
	존경·공정적 정서성	1.40(.82)	1.40(.87)	.08
	연민 정서성	2.79(1.29)	3.02(1.26)	1.97*

주. * $p < .05$

지만, 요인의 내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요인별로 접촉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보기위해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다른 요인들은 차이가 없었고, 연민 정서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역산되었으므로, 접촉이 없을 때($M=3.02(SD=1.26)$)에 비해 접촉이 있을 때($M=2.79(SD=1.29)$) 연민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행동의 근인으로서 행동의도를 설정하고, 행동의 전 단계에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여 행동을 예측한다. 이에 행동을 예측하는 전단계로서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석하기 전에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56~1.00, 분산팽창요인은 1.00~1.83으로 10이하여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분석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하여 이성적, 합리적인 개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한국인집단정체성 및 대상에 대한 태도에 해당하는 요소들로서 고정관념과 정서를 먼저 투입하고, 마지막 단계로 계획된 행동이론 관련 변인을 추가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먼저 한국인집단정체성($\beta=-.10, p<.05$)에 이어서 고정관념과 정서를 투입하였을 때, 정서($\beta=.31, p<.001$)가 고정관념($\beta=.26, p<.001$)보다 수용행동의도를 더 많이 설명했다. 이 두 요소를 추가했을 때 R^2 은 27%가 증가하였다. 이어서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가정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했을 때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의도를 더 설명하는 변량은 29%였고 증분이 유의했으며, 세 예측변인 가운데 태도($\beta=.41, p<.001$)의 영향이 가장 컸고, 지각된 행동통제($\beta=.26, p<.001$)의 영향이 그 다음이었고, 이어서 주관적 규범($\beta=-.15, p<.001$)의 순서였다. 이러한 변인들이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변량의 57%를 설명하는 결과를

표 5.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선행요인들의 비교

	B	β	t
한국인 정체성	-.11	-.10	-2.23*
고정관념	.59	.26	5.45***
정서	.44	.31	6.45***
R^2 변화량=.27***, $F=63.86$ ***			
태도	.37	.41	12.42***
주관적 규범	-.12	-.15	-4.72***
지각된 행동통제	.20	.26	7.47***
R^2 변화량=.29***, $F=108.53$ ***			
$R^2(Adj R^2)$		$R^2=.57 (Adj R^2=.57)$	

주. + $p<.10$, * $p<.05$, ** $p<.01$, *** $p<.001$

얻었다.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다음으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공차한계(tolerance .56~1.00)와 분산팽창요인(VIF), 1.00~1.80)으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한국인정체성과 고정관념 및 편견을 추가한 모형에,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라 수용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를 추가하여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과 그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였다(표 6 참조).

그 결과, 한국인집단정체성 변인은 수용행동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어서 고정관념과 편견의 추가적 설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수용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정관념($\beta=.27, p<.001$)과 편견($\beta=.29, p<.001$)의 영향이

표 6.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을 예측하는 선행요인들의 비교

	B	β	t
한국인 정체성	-.01	-.02	-.34
고정관념	.45	.27	5.42***
편견	.31	.29	5.77***
R^2 변화량=.25***, $F=54.60$ ***			
행동의도	.37	.49	12.10***
행동통제	.13	.22	5.84***
R^2 변화량=.21***, $F=113.78$ ***			
$R^2(Adj R^2)$		$R^2=.54 (Adj R^2=.53)$	

주. * $p<.05$, ** $p<.01$, *** $p<.001$

비슷했다. 이 두 요소를 추가했을 때 R^2 은 25%($p<.001$)가 증가되었다. 이어서 수용행동에 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두 변인, 즉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증가하는 설명량은 21%($p<.001$)였고, 행동의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beta=.49, p<.001$). 각 변인들은 전체적으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의 54%를 설명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수용적 태도, 수용행동의도,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 수용행동의도, 수용행동에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을 정서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주장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매개효과를 규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때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주요 종속측정치인 수용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고정관념이 수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이 때 1) 고정관념이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beta=.42, p<.001$). 또한 2) 고정관념($\beta=.54, p<.001$)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3) 고정관념과 정서를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고정관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beta=.42$ 에서 $\beta=.28$ 로 줄어들었고 그 경로가 여전히 유의하여($t=8.61, p<.001$) 부분매개효과(Sobel test 결과, $Z=7.38, p<.001$)가 나타났다. 또한 동시에 회귀되었을 때 고정관념과 정서의 설명량은 비슷했다(고정관념 $\beta=.28$, 정서 $\beta=.26$).

그런데 이 때 Cuddy 등(2007)의 분석에 따라 고정관념, 정서, 행동의 부정적 측면만을 선택하여 매개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8), 1) 위협적 고정관념이 부정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eta=.46, p<.001$). 또한 2) 위협적 고정관념이 혐오적 정서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beta=.70, p<.001$). 마지막으로 3) 위협적 고정관념과 혐오적 정서를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위협적 고정관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beta=.53$ 에서 $\beta=.11$ 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경로가 여전히 유의하여($t=3.40, p<.001$.) 부분매개효과(Sobel test 결과, $Z=15.45, p<.001$)가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행동에 미치는 위협적 고정관념과 혐오적 정서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혐오적 정서의 영향($\beta=.59, p<.001$.)이 현저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대하여 동일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즉 고정관념이 수용행동의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그 결과를 살펴보면, 1) 고정관념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44, p<.001$), 2) 고정관념($\beta=.54, p<.001$)이 정서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3) 고정관념과 정서를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고정관념에서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beta=.44$ 에서 $\beta=.22$ 로 줄어들었고 그 경로가 여전히 유의하여($t=7.07, p<.001$.) 부분매개효

표 7. 고정관념이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의 매개효과

		B	β	t	adj R ²
β_1	고정관념 → 행동	.67	.42	14.88***	.18
β_2	고정관념 → 정서	.95	.54	20.17***	.29
β_3	고정관념 → 행동	.45	.28	8.61***	.22
	정서	.23	.26	7.74***	

주. *** $p<.001$

표 8. 위협적 고정관념이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혐오적 정서의 매개 효과

	B	β	t	adj R ²
β_1 위협적 고정관념 → 부정적 행동	.46	.53	19.93***	.28
β_2 위협적 고정관념 → 혐오적 정서성	.75	.70	31.35***	.49
β_3 위협적 고정관념 → 부정적 행동 혐오적 정서성	.10 .48	.11 .59	3.40*** 18.17***	.46

주. *** $p < .001$

표 9. 고정관념이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의 매개효과

	B	β	t	adj R ²
β_1 고정관념 → 행동의도	.91	.44	15.60***	.44
β_2 고정관념 → 정서	.95	.54	20.17***	.29
β_3 고정관념 → 행동의도 정서	.45 .49	.22 .41	7.07*** 13.42***	.31

주. *** $p < .001$

과(Sobel test 결과, $Z=11.13$, $p < .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관념과 정서를 동시에 회귀하였을 때, 고정관념($\beta=.22$)에 비하여 정서의 설명량($\beta=.41$)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동일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즉 1) 고정관념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beta=.21$, $p < .001$), 2) 고정관념($\beta=.54$, $p < .001$) 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3) 고정관념과 정서를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오히려 고정관념에서 태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beta=.21$ 에서 $\beta=.27$ 로 향상되어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10). 따라서 태도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고정관념과 정서를 태도에 동시

표 10. 고정관념이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의 매개효과

	B	β	t	adj R ²
β_1 고정관념 → 태도	.51	.21	6.96***	.05
β_2 고정관념 → 정서	.95	.54	20.17***	.29
β_3 고정관념 → 태도 정서	.64 -.12	.27 -.09	7.32*** -2.47*	.05

주. * $p < .05$, *** $p < .001$

에 회귀했을 때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beta = .27$)이 정서의 영향($\beta = -.09$)보다 더 컸다.

논 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 516명을 대상으로 동남아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와 접촉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동남아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즉 이 모형에서 대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로서 고정관념과 정서를 추가하였고, 사회정체성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인집단정체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태도와 행동의도 및 행동을 구별하여 각각의 변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정서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성별 차이를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인집단정체성과 주관적 규범이 더 높았다. 둘째, 접촉이 있을 때는 없을 때에 비해서 더 수용적인 행동을 하고, 행동통제를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접촉이 있을 때 없을 때보다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연민 정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한국인집단정체성의 영향은 미약했고, 고정관념과 정서를 투입했을 때 설명량의 증가분이 유의했으며,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

통제의 영향도 유의했다. 설명량으로 볼 때 가장 영향이 큰 것은 태도였다. 이것은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의 결과들과 일관된다.

넷째,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은 행동의도였다. 수용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한국인집단정체성은 유의하지 않았고, 고정관념과 정서의 추가 투입으로 설명량이 증가했으며, 이어서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이 유의했다. 설명량이 가장 큰 것은 행동의도였다. 이것은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의 결과들과 일관된다.

다섯째, 태도, 행동의도와 행동을 구분하고 각 변인들에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을 정서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행동의도와 행동에 대하여는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고, 태도에 대한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고정관념과 정서의 요인들이 다양하므로, Cuddy 등(2007)의 주장에 일관되는 요인을 선택하여, 위협적 고정관념이 혐오적 정서성을 매개하여 부정행동으로 이르는 경로를 매개분석한 결과에서도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uddy 등(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주요 종속측정치, 즉 태도, 행동의도, 행동에서 성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김금미, 2010)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다문화 수용적 태도, 행동의도, 행동이 유의하게 높았고, 주관적 규범은 남성이 높았던 점과 비교할 때 거의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다문화 수용성 연구 대상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결혼

이주여성과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여성으로 표상됨)과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주로 남성으로 표상될 수 있음)의 차이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접촉의 효과에 따라 고정관념과 정서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고정관념과 정서를 요인별로 나누어 구분해보았을 때는 연민 정서성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에 따라 연민 정서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양계민, 정진경(2005)의 결과와 일관된다. 더 나아가 접촉유무가 다른 고정관념의 요인들과 정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다문화수용성 향상 전략이 ‘연민’ 정서에 호소한 결과이거나, 대상에 대한 태도 가운데 ‘연민’이라는 태도가 가장 변화하기 쉽다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 전략이 ‘연민 정서’ 차원의 변화에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연민’ 정서는 ‘동화주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연민’ 정서의 변화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상호존중과 공감의 정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 갈 대안적 정서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고정관념과 정서 관련 요인의 변화가 개입된다는 점은 곧 향후 이러한 개입의 실효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셋째,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검증과 관련하여 고정관념과 정서가 행동 및 행동의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한 점이 중요하다. 동남아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용행동의도

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정관념보다 정서의 영향이 더 컸고, 수용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비슷한 영향을 보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고정관념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태도에 대해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행동의도와 행동에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행동에서 고정관념과 정서의 설명력이 비슷한 데 따라, 좀 더 세부요인을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고정관념에 비해서 정서의 효과가 현저히 두드러졌다. 이는 Cuddy 등(2007)이 행동에 정서가 미치는 영향이 고정관념의 영향보다 크다고 주장한 바와, 그리고 양계민, 정진경(2005) 및 김혜숙(2000, 2002; 김혜숙 등, 2003)의 연구에서도 수용행동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비한 정서역할이 우월하다고 주장한 바와 일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김금미(2011)의 연구에서 행동에 고정관념의 효과가 더 컸던 결과와는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위협적 고정관념과 부정행동의 관계를 혐오적 정서가 매개하는지 알아본 결과에서 정서의 효과가 고정관념의 효과에 비해 크다는 점이 단서가 될 수 있다.

넷째,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집단정체성이 다문화수용성에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 비교해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금미(2010, 2011)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그러나 다문화 수용성 분야에서 자민족 중심주의, 국민정체성 등의 이름을 빌어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진 다른 연구들(양계민, 2009ab; 윤인진, 송영호, 2009)과 일관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종속측정치를 태도, 행동, 행동의도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였거나, 본

연구에서 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대학생들이 점차 국제화되어감에 따라 ‘한국인집단정체성’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는 결과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의 시사점은 첫째, 모형검증에서 추후 인지적 개입의 여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인집단정체성, 고정관념, 편견에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후 인지적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입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 때 프로그램의 내용에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의 개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고정관념과 정서의 요인들 가운데 특별히 연민정서성에서 접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다문화주의와 좀 더 일관되는 방향으로의 접촉 방안과 연민정서성에 대한 대안적 정서성을 유도할 수 있는 개입 방법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부정적 행동의 방향으로 일치되는 고정관념과 정서를 이용하여 매개 분석을 한 결과에서 부분매개효과와 함께 정서가 행동에 미치는 강력한 효과를 얻었으므로, 특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부합되는 정서와 고정관념에 집중하는 방식의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추후에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입을 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관련하여, 접촉의 효과를 ‘접촉적이 있다, 없다’로 구분했는데, 양계민, 정진

경(2005)의 연구에 의하여 접촉의 유무에서 더 나아가 접촉의 방식, 즉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의 결과가 대조적이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접촉의 방식을 기준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서양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좀 더 확장한 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하는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리→행동’의 모형 틀을 검증하여 프로그램 개입의 가능성을 탐색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김금미 (2001). 집단의 사회정체성과 지위에 따른 내집단 편애-성별집단과 최소집단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금미 (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59-283.
- 김금미 (2011).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1-16.
- 김금미, 한덕웅 (2001).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5-38.
- 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외국인에 대한

- 한국 대학생의 인식: 6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23.
- 김명현 (2013). 외국인 노동자 이주현황. 월간 빛 3월호.
- 김현미 (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개. 경기도.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19-45.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 김혜숙, 김도영 (2010).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6-297.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혜숙, 박수미 (2006). 집단지위 정당성, 지위 안정성 및 집단정체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과 학벌차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71-95.
- 김혜숙, 오승섭 (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 맹진학 (2009). 한국인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 정책, 36(3), 323-348.
-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5-26.
- 박신혁, 정우영 (1996).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직무관련 만족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779-786.
- 송미영 (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분석. 민족연구, 41, 74-97. 한국민족연구원.
- 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계민 (2009a).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양계민 (2009b).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97-115.
- 유연재, 김혜숙 (2000). ‘한집단’ 범주의 접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 윤인진,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

- 구: 상반기(통권 55), 143-192.
- 전우영 (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19-232.
- 최수정 (2008).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동남아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덕웅, 이민규 (2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41-158.
- 황운경 (2012).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대전광역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 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MA: Addison-Wesley.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471-499.
- Arnold, J., Loan-Clarke, J., Combs, C., Wilkinson, A., Park, J., & Preston, D. (2006). How well ca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ccount for occupational inten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 374-39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ale, D. A., & Manstead, A. S. R. (1991). Predicting mothers' intentions to limit frequency of infants' sugar intake: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409-431.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68.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R. (2000). *Group process*. Oxford: Blackwell.
- Cuddy, A. J., Fiske, S. T., & Glick, P. (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31-648.
- Devine, P.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Brace Jovanovich.
- Fiske, S. T. (2004). *Social beings: A core motives approach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S.,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Forward, S. E. (2009).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he role of descriptive norms and past behaviour in the prediction of drivers' intentions to violat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12, 198-207.

- Gleitman, H. (1999). 심리학입문[*Basic psychology by Henry Gleitman, Alan Fridlund and Alan Reisberg*] (장현갑, 안신호, 이진화, 신현정, 정봉교, 이광오, 도경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95년에 출판).
- Hoyt, A. L., Rhodes, R. E., Hausenblas, H. A., & Giacobbi, Jr, P. R. (2009). Integrating five-factor model facet-level traits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xercis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 565-572.
- Norman, P., Armitage, C. J., & Quibley, C. (2007).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binge drinking: Assessing the impact of binge drinker prototypes. *Addictive Behaviors, 32*, 1753-1768.
- Simsekoglu, O., & Lajunen, T. (2008). Social psychology of seat belt use: A comparis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health belief mode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11*, 181-191.
- Song, Z., Wanberg, C., Niu, X., & Xie, Y. (2006). Action-state orienta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study of job search in Chin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 490-503.
- Weiten, W. W., Lloyd, M. A., Dunn, D. S., & Hammer, E. Y. (2009). 생활과 심리학 [*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 Adjustment in the 21st century*, 9th Edition] (김정희, 강혜자, 이상빈, 박세영, 및 권혁철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9년에 출판).
- 1차원고접수 : 2014. 07. 27.
심사통과접수 : 2014. 09. 19.
최종원고접수 : 2014. 09. 26.

The factors influencing receptive behavior towards th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Keum-mi, Kim

Sungkyunkwan University

Sang Su Ah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conform the effect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explaining receptive behavior intention as well as receptive behavior towards th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and to investigate the comparative role of Korean social identity, stereotype and prejudice(i.e. attitude about object) in the prediction of receptive behavior towards th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and to study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prejudice) in effects of stereotype on receptive attitude, receptive behavior intention, and receptive behavior towards th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A sample of 516 undergraduat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receptive intention was explained 57% by proposed model, while receptive behavior was explained 54% by this model. Furthermore, tests of the mediation model demonstrate that emotion(prejudice) as a partial mediator in the linkage between stereotype and receptive behavior towards th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s of this area were discussed.

Key words : th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stereotype, prejudice, theory of planned behavior, receptive behavior